

서 면 질 문 서

=====

질문의원명	김 용 석	소속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
질문대상자	박 원 순 서울시장		
질문제목	지하철 4호선(창동역~당고개역) 지하화 관련		

<질문내용>

- 2019년 현재 ‘창동-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’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나, 지하철 4호선 ‘창동역~당고개역’ 지상구간으로 인해 ‘창동-상계 신경제 중심지’의 계획적인 토지이용 불가와 도시경관 훼손, 심각한 교통체증 등 많은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.
- 창동역~당고개역 지상구간은 1985년 개통당시 창동 차량기지 진출입 편의성을 고려하여 건설되었으며, 지하철 4호선 연장 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으로 차량기지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
- 지하철 4호선 창동역~당고개역 지상구간은 ‘창동-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’과 연계하여 반드시 지하화되어야 합니다.
- 이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과 지하화 관련 용역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서 면 질 문 서

=====

질문의원명	김 용 석	소속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
질문대상자	박 원 순 서울시장		
질문제목	창동민자역사 정상화 방안 및 신혼부부·청년주택 건립 관련		

<질문내용>

- 창동민자역사는 2004년 2월 건축허가를 득한 상황이었으나, 사업진행의 속도가 지지부진하여 2010년 11월 최종적으로 공사가 중단(공정률 25%)되어 10년 넘게 지역 흉물로 방치되면서 창동역 이용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시급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.
- 2019년 7월 9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되면서 더 이상의 민간투자기업의 사업 수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
- 창동민자역사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신혼부부·청년주택 등을 건립하여 창동민자역사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, 이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